

중국변호사로부터 듣는 '중국 투자시 알아야 할 법률적 유의사항' (하)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전략

글 _ 탕예(중국 준허(君舍) 법무법인 변호사) 번역 및 정리 _ 변중원(거성통상 대표, (기술수출 노하우 및 국제계약 실천사례) 저자)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투자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는 중국정부의 WTO 가입 이후 달라진 외자기업의 투자 규제완화와 수정된 법률에 대해,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외자도입제도와 심사비준 그리고 외자기업의 투자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기업의 직접투자 현황과 한국기업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현황 및 발전 전략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다. 투자 발전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보면 '수교 이전의 시작단계', '수교 이후의 신속 발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충격 후의 안정적 성장기', '1999년 이후의 신속 성장단계'로 볼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 정책 실시로 외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나라가 그 시기 이후 중국에 직접투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1992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 직접투자의 시작이 늦은 편이었지만 발전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1) 시작은 늦었지만 발전은 빠르다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1985년부터 생겨났다. 그러나 그 당시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 몇 년간은 홍콩 혹은 일본을 통한 간접투자가 이루어지다가 1988년에 들어서 직접투자가 시작되었다. 1985년에서 1992년 양국 수교까지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934건, 계약금액 6.2억달러, 투자금액 약 1.6억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처음의 발전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투자신장속도는 가속화되어 1998년 말에 이르러 한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이미 1만177건, 계약금액 148.4억달러, 투자금액도 이미 72.9억달러에 달하였다. 수교 이후 관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증가를 촉진하는데 미친 크나큰 영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직접투자금액을 볼 때 최근 한국은 이미 미국, 일본 및 싱가포르에 이은 4대 투자국이 되어있다.

(2) 제조업의 투자가 대부분이다

한국기업 중국 투자의 뚜렷한 특징은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투자총액의 85% 정도에 이른다. 주요 원인은 한국에는 중소형 제조업이 비교적 많으며, 국내의 극심한 경쟁을 피해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외자 유치의 무게중심을 제조업 부문으로 전환하였다. 한국기업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자본 유치 방침에 근거하여 중국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3) 기술 및 자본 집약형 기업으로 투자가 전환되다

한국의 중국 투자기업 구성을 볼 때 과거에는 중소형 노동집약형 기업의 투자가 비교적 많았다. 이것은 유럽, 미국 및 일본과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의 중국 투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방직, 완구, 제화, 피혁가공 등과 같은 주로 노동 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전기, 자동차, 화학 등 기술집약형 및 자본집약형 기업의 중국 투자가 신속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유럽, 미국, 일본 기업과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 영역에서는 한국 자본의 기업이 일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4) 투자지역은 광활하다

최근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지역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투자 초기 한국인은 동북에 조선족이 있어서 언어소통의 편리성 때문에 발해만 주변의 동북 및 산둥 등지에 집중된 반면, 중국 남방 성시 및 내륙 지방에 대한 투자는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기업의 중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중국연해지방 및 중서부지방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전은 한국의 정보산업 및 통신산업의 투자가 발해지방에 집중되었지만, 현재는 투자의 중심이 이미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강 삼각주 지방으로 옮겨졌다.

(5) 투자 효과가 양호하다

미국 주중상공회의소의 중국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 발표에 근거한 《2003년 백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 중 미국 투자기업의 이익이 가장 양호하며 기업 이익 비율은 75%에 달하는데, 이것은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중국 투자기업 이익은 미국 기업 다음으로, 흑자 기업은 57.1%에 달하고, 그 밖의 29.7% 기업은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에 있으며, 적자기업은 10%를 차지할 뿐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시 유의사항

(1)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중국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방 정부의 정책실적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해당 관할 지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우대 정책 중 가장 많은 것이 세금 우대 정책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금은 중앙정부가 입법의 형식을 거쳐 규정을 통일한 것으로,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할지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세금 우대는 위법이 된다. 위

법한 세금 우대 정책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므로 만일 해당 지방정부가 세금 우대를 제공하기로 허가했다면 반드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우대혜택정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수출허가 및 수출 할당액(Export License and Export Quota)

일부 한국기업은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된 제품을 국제 시장에 수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수출허가증이 제출되고 할당액이 관리되는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수출허가증을 취득하고 수출 할당액을 신청해야 하는 제품에 포함될 경우,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허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심사에서 국내 기존 기업의 수출 능력과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 수요를 고려하여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중앙정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제품 수출 허가시 제출 수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3) 노동 인력 운영의 문제

한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기업은 가공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제조업은 노동집약형 기업에 속하므로 고용해야 하는 직원의 수가 비교적 많다. 한국기업은 중국정부가 반포한 노동법과 관계되는 유관 규정을 이해하고, 노동법의 근무시간, 사회보험, 해고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며, 노동 인력 운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노동쟁의를 최대한 피하도록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이 밖에 중국 노동자의 사회 보장 체계(social security system)의 제정 및 개선에 따라, 한국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임금원가 역시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한국기업은 중국정부의 최신 노동입법 현황을 잘 이해해야 비로소 기업의 경영 원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中, 1~4월 첨단기술 제품수출 64% 증가

지난 1~4월 중국의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64% 늘어났다고 중국 경제지 국제상보가 지난 5월 30일 보도했다. 국제상보는 상무부 통계를 인용, 올 4월까지의 IT 제품 수출액은 460억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수출액의 28%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첨단기술 제품 수입액의 경우, 40% 증가한 470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액은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보출처 : 연합뉴스**

인도, IT산업 올 회계연도 200억달러 돌파 전망

인도의 IT산업 관련 수출이 2004년~2005년도 기간 중 전년동기비 30~32% 증가한 163억달러, 내국산업 부문은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42억달러를 기록해 전체적으로는 205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Nasscom이 전망했다. 또한 IT 서비스부문은 26~28% 증가한 1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를 112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70%)과 영국(15%)이다. 한편 2003~2004년도 기간 중 이 부문에서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Nasscom은 밝혔다. **정보출처 : www.kotra.or.kr**